

## 민주당 대혼란

### 孫대표 사의 “서울시장 후보 통합경선 패배 책임” 제1야당 유명무실... 혁신없는 내년 총·대선 위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위기와 도약의 갈림길에 직면하고 있다.

60년 전통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출마한 지 한 달도 안 된 무소속 후보에 패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조차 못 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일 아권 통합경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박원순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최고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나서 손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상대책위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정동영 의원이 대표직을 승계할 것인지

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손 대표 사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론 등이 제기되는 등 추후 당 운영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통합후보 경선 패배를 떠나 제1야당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는 그동안 각종 현안을 놓고 수차례 나타났으며 이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 한 명을 내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의 혼란이 민주당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누가 미래의 희망을 찾겠느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민주당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야권의 망설임으로 통합 경선 결과와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권의 역량을 결집,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의 승리’로 이끌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의 과감한 개혁과 변화로 연계시키며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추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더 큰 희망으로 만드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극복해 나가느냐에 민주당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야권의 망설임으로 통합 경선 결과와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야권의 역량을 결집,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의 승리’로 이끌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민주당의 과감한 개혁과 변화로 연계시키며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추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더 큰 희망으로 만드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이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죽산보 8색 경관조명

익산국도관리청은 4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의 야간 경관조명을 시연했다. 2100여 개의 LED 전구가 설치된 죽산보 경관조명은 무지개색과 흰색을 포함한 8가지 색이 계절 및 시간별로 바뀌며 장관을 연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시교육청·광산구 학교·시설 폐쇄 조치

광주시가 최근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위탁지정 취소, 광산구는 인화원·보호작업장·근로시설의 폐쇄 등 행정 및 교육기관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시에 단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에서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학 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그러나 현재 인화학교 등에 재학 또는 재원하고 있는 장애학생 및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7일 광주시와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 부시장은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오는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겠다”며 “우석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시설 폐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장애학생들의 위탁교육 취소와 폐교조치 단행을 재확인했으며, 인화학교 폐교에 따른 전학 조치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와 폐쇄시 뒤따르는 청산절차 과정에서 부지와 시설 등의 처리를 놓고 법인의 소송 등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며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만족할만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시설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인 인화원 57명, 인화학교 22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 등이 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군사 반란 판결을 받았던 12·12 사태 관련자 5명(광주일보 9월 30일자 1면)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참여자 2명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5·18 기념재단은 12·12 등 관련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에 대해 최근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5·18 당시 진압 작전에 참여해 서훈된 사람 중 진종재 당시 2군 사령관과 소준열 당시 전투교육사령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난달 30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12·12 관련자로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 김호영 전 2기갑여단 16전차대대장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김호영씨는 동명이인이어서 혼선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

5·18 진압 2명도  
국립묘지에 안장

## “박지사 영산강 살리기 찬성은 위민행정”

전남도 국감 한나라 의원들 칭찬 눈길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찬성 입장을 견지했던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격려와 칭찬이 잇따라 눈길을 끌었다.<관련기사 3면>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 지사는 지난 2009년 이 자리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영산강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면서 “그 때 정과와, 이념을 떠나 전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팬이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남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4년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고 ▲영산강 하구둑 통선문 확장(폭 6m→20m) ▲영암호 통선문 신설(폭 20m) 등도 수십여차례 정부에 건의해왔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치적 접근

이 아닌, 전남 발전과 도민 이익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게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며 박 지사를 격려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애초보다 좋아졌는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는지 평가해달라”고도 했다.

박 지사는 “준설은 별개 문제”라고 전제한 뒤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업이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의 경우 향후 영산강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홍보 전문대행사 떴다...(주)아테크·알리오 TV는? ▶14면

# 아름다운 선택!

利 4Bay, 4Room(84㎡ 적용)의 플러스알파 공간

寮 10cm높은 층고, 10cm넓은 주차공간의 여유

遊 호수공원에서 산책코스와 휴식의 즐거움

快 정남향 위주 단지배치, 용적률 150%의 쾌적성

주택전시관  
**10월 7일**  
OPEN

## 수완리채

### 2013년 2월 입주예정

**방문만 해도 경품이 와크르~**

**오픈기념 이벤트**

1. 경품 응모 추첨행사 42인치TV,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청소기, 자전거
2. 오픈 3일간 방문고객 3,000명 사은품 제공 (선착순 1,000명 / 교환권 소지자 2,000명)
3. 계약자 200명 한정 고급 주방 용품 제공(풍년베르투 입력식)
4. 오픈기념 서양화 초대전
5. 카페테리아 - 엔젤리너스 커피 무료 제공

84㎡(구33형) / 68㎡(구28형) / 총 403세대

**문의전화. 1566-2105**

신우치구

광주중합

바스타리아

운양동

신세계

백화점

금남로

현대자동차

상위아파트

신아

진야건설(주)

SR건설

신아

아이리스건설(주)